

말모이 단어 모음집

당신의 언어습관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단어들. 내가 무심코 사용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말모이] 사업은 시민이 직접 우리가 큰 의미 없이 사용했던 말들 중에 특정 대상을 차별, 비하하거나, 편견과 혐오의 의미를 담은 말들을 찾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말들을 찾는 것이 아닌 이 말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단어들이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령, 성, 장애, 신체, 욕설, 인종, 국가, 지역, 직업, 빈부 등 다양한 주제의 말들을 많은 시민 분들과 함께 발굴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총 225개의 단어들을 발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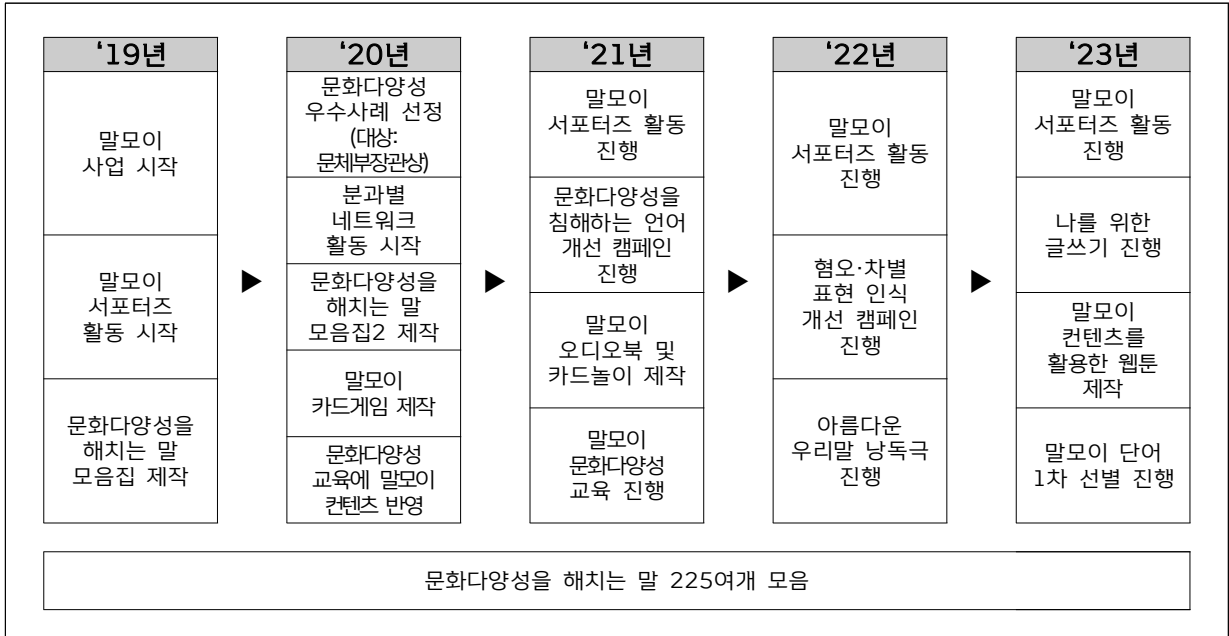
이중에는 분명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 사용한 적 없는 단어들도 있을 것이며, 굳이 이런 단어까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단어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단어들이 가진 무서운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단어들이 '나'의 언어습관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사용하면 안 된다 혹은 단어들의 의미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사회의 흐름이 반영되고 있어 과거의 나쁜 의미가 꼭 현재에도 나쁜 의미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각 개인이 가진 생각, 당사자성 등에 의해 각 단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의미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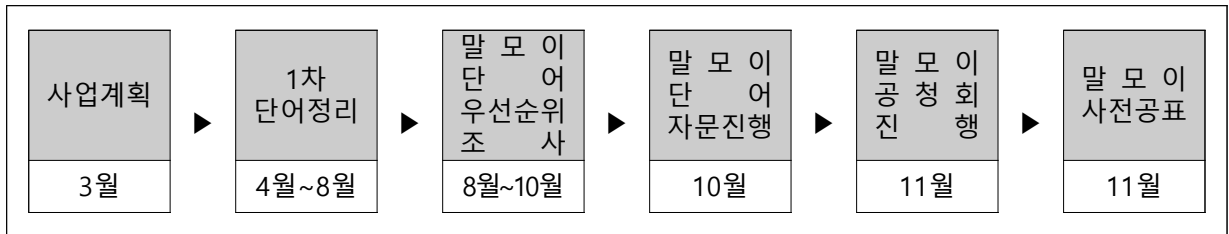
[말모이] 활동을 통해 발굴된 단어들이 오히려 차별을 조정하고, 이 단어들로 인해 차별받는 대상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런 단어들이 가진 의미를 더 전달하고 올바른 언어습관과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수집된 단어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보다는 그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숨은 의미와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편견을 가지며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19년~'23년 말모이 사업 추진 과정



○ '24년 추진 계획



- 5년간 수집한 10개 주제 225개의 단어들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진행
-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총 50개의 단어 선정
- 선정된 50개 단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진행
- 말모이 시민 공청회 진행을 통해 50개 단어에 대한 적부 토론 진행
- 시민 공청회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단어들을 정리하여 사용을 지양해야하는 [말모이] 사전 공표

○ 말모이 단어 개수 및 주제별 단어선정 개수

구분	주 제	개수	단어선정 개수
01	연령	18개	5개
02	성	74개	11개
03	장애	29개	6개
04	신체, 욕설	29개	6개
05	인종, 국가	25개	5개
06	지역	4개	2개
07	우리말 속 일본어	17개	4개
08	직업	6개	3개
09	빈부	10개	4개
10	기타	13개	4개
합 계		225개	50개

<목차>

01. 연령	7~25
02. 성	27~101
03. 장애	103~132
04. 신체, 욕설	133~162
05. 인종, 국가	163~188
06. 지역	189~193
07. 우리말 속 일본어	195~212
08. 직업	213~219
09. 빈부	221~231
10. 기타	233~246

1. 연령

단 어	개저씨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개저씨

- '개'념이 없는 아'저씨'
- '개'+아'저씨'로 나이나 지위를 앞세워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중년층 남자

중년층 남성 모두가 약자에게 함부로 하나요?

약자에게 함부로 해서도, 누군가를 혐오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단 어	급식충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급식충

'급식' 역시 청소년을 비하하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충**'(蟲 : 벌레 충)이 더해져 혐오가 짙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10대 시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10대 시절의 당신에게** '급식충'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볼까요?

단 어	꼰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꼰대

혹시 나 '젊꼰(젊은 꼰대)' 일까?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 여럿 사람이 나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장난이라도 한마디 한다.
- 묻지도 않은 걸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말하기보다 **들어주기!** 조언 대신 **공감!**

서로 **배려**할 때 혐오도 사라지겠죠?

단 어	나일리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나일리지

나일리지?='나'이+마'일리지' 합성어

나이가 많은 것을 내세워 이득을 바라고 경로 우대해주길 바라는 사람을 일컫는 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득을 바랄까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혐오 정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도 나이가 들 텐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요?

단 어	노슬아치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노슬아치

'노'인+벼슬'아치'

나이가 벼슬인 것처럼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인 듯이 말하는 노인

수많은 경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하지만,

그 결과만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도 있지요.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단 어	할망구, 연금총, 노친네, 늑다리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할망구, 연금총, 노친네, 늑다리

이런 연금총들...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줄임말)
 틀딱총이다! ('틀니'를 '딱딱' 거리는 노인의 줄임말)
 노친네 나잇값도 못하네
 할망구 주제에!

일부 몰지각하거나 극우·수구적인 성향의 노인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의미가 확장되면서 노인 전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들을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내뱉은 혐오표현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어르신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는 멈춰주세요.

어르신 앞에서도 말할 수 있나요?

단 어	중2병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중2병

다들 겪어봤잖아요!?

그 시절, 우리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 사는 세상 혼란스럽잖아요.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요?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특성에

'병'을 붙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춘기도 빠르다고요!

중학교 2학년만 사춘기인가요?

단 어	초딩같다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초딩같다

'초딩같다'는 표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유치한 행동을 하거나 철없는 행동을 할 때 초딩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정한 이미지에 갇혀서 초등학생, 어린이를 바라보는 건 아닌가요?

아래 책을 추천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김은정 옮김
 「우리는 어린이 시민」 채인선 글/황보순희 그림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

단 어	학생답게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학생답게

학생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답게'라는 표현은 청소년에게 강요와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학생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학생답게'는 무엇인가요?

단 어	공부하는 아이들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공부하는 아이들

선생님! 보호자님! '재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이잖아'라고
말한 적 있다면 손!

'공부'는 학교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내면 공부하는 아이들과 하지 않는
아이들로 판단하여 구분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거나 기계 작동법을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누가 더 대단하고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단 어	할매미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할매미

여름을 알리는 매미 울음소리를 떠올려보세요!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렁찬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할'머니+'매미'

일부 할머니를 매미에 비유한 혐오단어가 있습니다.

'잘 안 들리니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할머니만의 문제인가요? 개인의 문제 아닐까요?

'할매미'는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정서가 담겨있습니다.

단 어	잼민이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잼민이

'잼민이'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단어로, 좁게는 여러 곳에서 민폐를 끼치는 무개념 초등학생들 넓게는 모든 초등학생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자신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떤 걸 배우며 자랄까요?

아이들을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낙인찍지 말아주세요.

단 어	초글링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초글링

'곧 방학이네. 초글링이 몰려올거야..'
 '초글링들 때문에 또 바빠지겠네.'
 '아.. 초글링들은 시끄러워서 짜증나는데.'

'초글링'이란 **'초등학생'**과 게임 캐릭터 **'저글링'**을 합친 말

방학이나 하교시간에 피씨방에
 떼를 지어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게임의 저글링과 비슷하다고 하여 만들어진 인터넷 용어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깃든 말이지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요?
 비하하는 표현보단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단 어	혐로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혐로

'혐로'는 말 그대로 **'노인을 혐오한다'**는 의미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혐로 현상이 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던 이들이
 지금은 무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사회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고령세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함께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 어	~린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린이

'~린이'는 명사+어린이의 합성어로

'주린이(주식+어린이)', '헬린이(헬스+어린이)' 등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있어 초보자이거나 미숙한 대상을 칭하는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린이**'라는 표현은
어린이가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부족하거나 미숙하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린이'보다는 '**초보**', '**입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단 어	애새끼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애새끼

‘애새끼’는 어린아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비하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커왔듯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도, 아이들에 빗대어 누군가를 욕하는 일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삼식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삼식이

“나 이만 끊을게. 남편 밥 챙겨줘야돼.”

“남편 집에 계셔?”

“응. 우리 남편 삼식이잖아~”

‘삼식이’=퇴직 후 집에서 밥을 세끼 다 챙겨먹는 남편을 일컫는 말

퇴직 후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 남편 혹은 아버지.

어색하고 귀찮기만 하신가요?

‘삼식이’라는 말로 그간의 기다림과 서운함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보내기도 시간이 모자란걸요?

단 어	고령자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고령자

여러분에게 **'고령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고령자를 나누는 기준도, 그들의 삶도 다 다르지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많은 차별을 받지요.

여러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으나,
이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 마련과 함께 고령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성

단 어	○○엠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팬		

○○엠 → ○○팬

(연애인 이름) + 엠(애미)

아이돌 팬덤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며 엄마의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로 특정 팬의 행동이 부정적일 때 사용합니다.

'애미'는 '어미'의 경남 방언인데요 '어미'는 '어머니'를 훌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즉, '어머니'를 비하하는 단어라는 거죠.

'엠'이 주는 뉘앙스는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아이돌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 인기로 부정적인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폭 빠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입덕'은 '입양'으로, 어떤 분야에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탈덕'은 '파양'으로,

의도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 어	〇〇줌마, 〇〇주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〇〇줌마, 〇〇주부

요리를 잘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

'요리를 한다=아줌마(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과 성별은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단 어	가정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가사도우미		

가정부 → 가사도우미

가정부의 '婦'는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사 도우미]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어	접대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접객인, 접객원		

접대부(婦-며느리 부) → 접객인, 접객원

요릿집, 술집 따위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유흥 접객은 여성만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대부**라는 말이 이 일이 여성만이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

접대부 말고도 [**접객인**], [**접객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한 성차별, 없어야 합니다!

단 어	과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故~씨 아내		

과부(婦-며느리 부) → **故~씨 아내**

과부 寡婦

부족한 여자

과부의 뜻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아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여자'라는 의미로 언어폭력이자 과거 여성의 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불쌍하다 다시 장가를 들라고 하지만
남편이 먼저 죽으면 '팔자 센 년'이라고 욕먹었습니다.

'팔자 세다'는 낙인에 평생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단 어	주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주부 (婦-며느리 부)

주부 主婦

1.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주인**
2. 한 집안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사람의 **아내**

'주부(主婦)'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죠.

그렇다면 **[주부(主勑*)]**는 어떨까요?
힘들일 부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일!

가사노동의 **주체로서 힘쓰는** 우리가 모두 주부입니다.

단 어	게이같다, 너 게이야?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게이같다! 너 게이야?

'게이'에 남녀 구분이 없지만 주로 남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여성혐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이 남성에게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여성상은 나쁜 것, 약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여성처럼 하면 안 된다는 뜻을 포함한 비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성 소수자, 여성 혐오 및 차별 발언을 적어도 대놓고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면 좋겠습니다.

단 어	김여사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운전미숙자		

김여사 → 운전미숙자

대검찰청 2018년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교통범죄자의 85% 남성, 1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남성 운전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요?

경찰청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여자가 41.8%, 남자가 58.2%입니다.

면허 소지자 현황은 비슷하지만 교통사고 및 교통 범주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운전 미숙한 저 사람은 당연히 '여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김여사'에 담겨 있습니다.

언론에서조차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김여사'로 표현합니다.

남성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는
운전자의 성별을 강조하지 않는 것과 대비됩니다.

김여사가 아니라 [**운전 미숙자**] 입니다.

단 어	꿀페미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꿀페미

'꿀페미'라는 표현은 정치, 경제, 개인, 사회 전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남성을 비판하는 누군가에게 무작정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저울을 동등하게 맞추려면 양쪽에서 노력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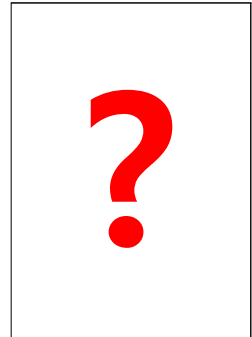
단 어	꿀마초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꿀마초

'꿀'통스러운+'마초'

남성우월주의와 이기주의로 성차별적 언행을 하는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
 어디 여편네가 차를 끌고 다녀
 사람은 패야 말을 잘 들어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남자가 사회생활하다보면 유흥업소 갈수도 있지~



단 어	여자답게, 남자답게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여자답게, 남자답게

성별 특징을 구분하고, 행동이나 말투를 사회가 강요합니다.

그냥! 너답게!

고정관념이 생기고,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받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나답게!

단 어	김치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김치녀

남성을 외모, 경제력으로 평가하는 일부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되어 전체 여성을 겨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젠더관 프레임을 여성에게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를 해칩니다.

단 어	녹색어머니회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녹색안전지킴회		

녹색어머니회 → 녹색안전지킴회

**등하곳길에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지키는 단체**

과거 여성이 주 구성원이었으나
최근에는 남성도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남성도 의문이 들 것이고,
여성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녹색안전지킴회] 어떠신가요?

단 어	느금마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녹색안전지킴회		

느금마

느그('너희'의 방언)+엄마 줄인말

상대방을 무시하고자 상대방의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느금마'라는 말이 만만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격받으셨나요?

'어머니'를 뜻하는 부정적인 말이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금마'는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차별단어입니다.

단 어	된장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된장녀

과시형 소비를 하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된장녀'

사치? 검소? 존중? 개인의 가치관?
N개의 삶에는 N개의 선택이 있기 마련이죠.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을 고정해둔 채로,
실제로 만난 적 없는 '된장녀'라는
불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여성을 바라보고
삶의 방식을 희화화한 것은 아닐까요?

단 어	리벤지포르노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 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이 결별 후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예전 파트너의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복(revenge)+포르노(pornography)

'보복', '복수'는 잘못을 저질러서 괴롭힘을 당해도 될 때 사용하지 않나요?

헤어졌다는 '이유'가 '잘못'이 되나요?

'보복'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포르노' 역시 음란물로서 소비된다는 뜻입니다.

리벤지포르노가 아니라

'촬영하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근절해야 하는 **[불법 촬영물]**입니다.

단 어	맘스스테이션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어린이승하차장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 승하차장

Mom's Station?

반드시 엄마가 아이의 등하원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NO!
 다른 보호자도 할 수 있겠죠?
 모든 가정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은 아닐 것입니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모두 어린이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어린이가 주체가 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려하는

[**어린이 승하차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 어	맘충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맘충

Mom+蟲(벌레 충)???

자녀 교육은 오로지 '엄마'의 몫일까요?

자녀의 교육은 보호자 혹은 부모가 하는 것인데
혐오의 시선은 엄마와 아이에게 집중된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가중된 양육부담으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맘충은 혐오와 차별단어입니다.

단 어	머리를 었다(올리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첫라운딩, 첫필드		

머리를 었다(올리다) → 첫라운딩, 첫필드

김 사장, 오늘 골프 머리 올리러 가는데 기분이 어떤가?

기대됩니다. 허허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관용적으로 '머리를 었었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기생이 정식으로 첫날밤을 보내고 머리를 쪽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속에는 여성의 첫날밤, 순결에 대한 고정관념이 들어있습니다.

'처음, 시작=여성의 순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말일까요?

단 어	미망인(未亡人)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故~씨 아내		

미망인 → 故~씨 아내

남편을 따라 아직 죽지 못했다는 뜻의 '미망인'

"미망인 A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를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하지만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A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시무시한 뜻이 담긴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했네요.

과거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시대적 관점에서 벗어나면 [故~씨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 어	배달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배달원		

배달부 → 배달원

배달부에서 '부'는 지아비 '夫'이므로 남성을 뜻합니다.

직업에 성별 제한을 두는 고정관념은 지양해봅시다.

'배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배달원**]은 어떠신가요?

단 어	버진로드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버진로드

결혼식장에서 주로 신부가 걸어오는 길

Virgin=숫처녀, 순결한, 정복하지 못한, 개척할...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버진로드 말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단 어	별창녀, 별풍서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별창녀, 별풍서들

별창녀

'별'풍선+'창녀'의 합성어로 여성 방송인 중 영리목적으로 성적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인을 비하하는 여성혐오 표현

별풍서들

별풍선을 갈자 바치는 남성을 일컫는 말

'별창녀'와 '별풍서들' 속에 들어있는 여성비하 관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어	보슬아치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보슬아치

- '보'지+벼'슬'아치의 합성어
- '보지 달린 것이 벼슬인 줄 아는 여자'라는 뜻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이며 여성혐오 단어입니다.

단 어	분모, 분자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아랫수, 윗수		

분모, 분자 → 아랫수, 윗수

일본식 표현으로 분母, 분子를 의미해요.

처음 학교에서 배울 때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라'라고 배운 기억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아랫수], [윗수]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쉬워서 금방 익숙하게 사용할 것 같지 않나요?

단 어	빠순이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빠순이

BAR순이

한국 전쟁 후 미군기지 인근 바(BAR)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멸시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로 양공주와 같은 의미

빠순이

연애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극성 팬 중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두 가지 의미 모두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단 어	삼일한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삼일한

삼 일 한?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자는 삼 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일부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여자와 복어는 삼 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는 속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속담 역시 여성혐오가 짙은 단어입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습니다.

혐오를 멈춰주세요.

단 어	소녀감성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소녀 감성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거친 면, 강인한 면, 차분한 면, 부드러운 면...

그런데 유독 여리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에 대해 '**소녀감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녀는 여려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감성을 지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소녀는 멋질 수 있고 카리스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라도 누구나 여릴 수 있고 감성이 총만할 수 있습니다.

단 어	아녀자, 여편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아녀자, 여편네

이 여편네가 감히 어딜?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유가 된다.
(여자는 감사한 짓을 부리기 쉽다.)

암탉이 운면 집안이 망한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제쳐 놓고 떠들고
간섭하면 집안일이 잘 안 된다.)

여편네 활수하면 벌여들여도 시루에 물 붓기
(아무리 벌여들여도 집안의 주부가 살림을 헤프게
하면 늘 허덕이게 되고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아녀자

1.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2. 어린아이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여편네

1. 결혼한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2.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단 어	앙기모띠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앙-기모띠

'앙-기모띠' 알아?

일본 성인물에 나오는 의성어

일본어의 '기분이 좋다' 앞에 '앙'을 붙인 합성어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미성년자는 폭력적인 행위에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성관계로 인해 잘못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어	애탄(애탄)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애탄(애탄)

'애미 창녀=엄마 창녀'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여성 혐오 단어입니다.

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엄마를 창녀로 만드나요?

단 어	여OO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여OO

**여경과 경찰? 여중 여고? 여교수와 교수?
여직원과 남직원? 여가수와 남가수? 여검사와 남검사?**

여성혐오 단어가 너무 많아서 불쾌하신가요?
단어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을 줄 몰랐기에 충격이었습니다.

보수적이고 여자의 권리가 낮던 조선 시대가 아닌데
여전히 여성혐오 단어는 만연하게 공기처럼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보편적 관점은 어디에 있나요?

단 어	외할머니,외할아버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손녀, 외손자에서 드러나는
'외'는 **外(바깥 외)**입니다.

아버지의 부모 호칭은 '親(친할 친)을 사용하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구분하죠.

어머니의 부모는 '배제' 된 존재여야 하고,
 아버지의 부모는 친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어릴 때는 왜 '외'일까? 고민했지만
 어느 순간 당연히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떤 호칭이 좋을까요?
 여러분 의견을 말해주세요!**

단 어	유모차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유아차		

유모차 → 유아차

어린이를 태워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모차(乳母車)

그런데 단어에 '母(어미 모)'가 있어
 여성에게 육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아빠들도 많이 끌고 다니고요.

'어머니'가 아닌 '유아'가 주체가 되는
[유아차(乳兒車)]는 어때요?

단 어	인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육체노동자		

인부 → 육체 노동자 → 노동자

인부, 품삯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人夫(지아비 부)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육체노동은 남성만의 영역인가요?

성별을 가르지 않는 단어

[육체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서 이어져 온 성별 영역을 가르는 태도, 바꾸어 나갑시다!

단 어	자궁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포궁		

자궁 → 포궁

자궁(子宮)(아이집, 아들 집) → 포궁(胞宮)(세포 집)

최근, '자궁'을 '포궁'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궁은 아들 자(子)를 사용하여 딸을 배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아들 자)는 아들만을 뜻하지 않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 자가 사람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을까요?

과거 남아 선호 사상이 녹아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성 중립적 표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Policeman → **Police officer**

Fireman → **Firefighter**

이미 한의학 및 중의학에서는 의학 용어로 [포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부터 차츰차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봐요!

단 어	젠신병자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젠신병자

=트렌스젠더+정신병자?

성소수자 혐오 + 장애인 혐오

다르다는 이유를 차별과 비난, 조롱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나요?

단 어	처가, 시댁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처가, 시댁

처가=아내의 집안

시댁-남편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

처가, 본가, 시댁...

결혼한 배우자의 집안을 이르는 말이죠,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댁' 이라는 말도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시나요?

시댁이면 처댁! 처가면 시가!

단 어	출산율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출생률		

출산율 → 출생률

출산율 - 가임기 여성 1명당 아기를 낳는 비율

출산율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인구절벽'을 이야기하며 저출생이 크게 문제시되는 우리 사회!
태어나는 아이들은 수치로만 계산되고,
그 수치의 하락은 출산행위를 하지 않는 여성들의 탓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출생률 - 일정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인구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

출생률은 태어난 아이가 주체가 되는 단어입니다.

출산율을 출생률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고쳐 부르는 움직임이 알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단어, 함께 바꾸어 나갑시다!

단 어	피싸개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피싸개

월경은 마법, 매직, 그날, 대자연, 생리 등으로 불리며 숨겨져 왔습니다.

월경은 오래전부터 불결한 것, 부끄러운 것, 남에게 절대 내보여선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경은 정말 그런 것인가요?

월경은 모든 여성이 겪어야 하는 생리현상입니다.
또한 생명 탄생과 관련된 '신성한' 일이죠

이제는 혐오를 멈추고 월경을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월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언행에 대한 점검일 것입니다.**

단 어	한남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한남

한남=한국남자의 줄임말. 여성혐오적 사고방식에 갇힌 남성들을 일컫는 말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항하여 나타난 또 다른 표현 '한남'

이처럼 누군가를 혐오한 표현은

또 다른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오의 연쇄,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단 어	호모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호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87.5%, 94.6% 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호모'와 '변태'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실시 결과 발표 내용 중

은연중에 혹은 장난으로 '호모'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나요?

성 정체성은 비난의 대상도, 놀림감의 대상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세요.

단 어	효자손, 효자선물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등급개, 효도선물(인기상품)		

효자손 → 등급개

효자상품 → 인기상품

효자상품? 효자손?

효도는 아들만 하나요?

딸은 효도하지 않나요?

가부장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차별 단어,

이제는 효자손은 [**효도손** 혹은 **등급개**],

효자선물은 [**효도선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단 어	흥자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흥자

'흥자'='흥내'와 '자지(남성성기)'의 합성어

남성주의적 사고방식에 동조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단어. 주로 여성이 여성에게 사용.

≒ 명예남성

힘오가 없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단 어	여자 나이 25살이면 꺾였지~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여자 나이 25살이면 (무엇이든) 꺾을 수 있지~		

여자 나이 25살이면 꺾였지~

“너 몇 살이야?”

“25살이요.”

“여자 나이 25살이면 꺾였지~”

유독 여성의 나이를 두고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나이에 대한 비하표현은 잘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표현들은 여성이 어떤 것을 시도하는데 망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성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무엇에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나이로 한계 짓지 말아주세요.

단 어	처녀막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질 입구 주름		

처녀막 → 질 입구 주름

‘처녀막’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의 질 구멍을 부분적으로 닫고 있는, 막으로 된 주름 또는 구멍이 난 막’입니다.

이는 성관계 시 손상되기도, 손상되지 않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처녀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처녀성, 순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처녀막’을 대신할 표현으로
[질 입구 주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단어,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폐경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완경		

폐경 → 완경

‘폐경’은 마지막 월경 이후 1년간 월경이 없을 때, 즉 월경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에서 규정한 “여성성”의 상실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경이 끝남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삶도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폐경(閉經)’의 한자 뜻풀이 또한 **‘월경이 닫힌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이에 최근엔 **‘완경(完經)’**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경’은 **‘월경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월경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 어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서방님,아가씨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부남, 부형, 부제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남편의 형제자매	호칭	아내의 형제자매	호칭
형	아주버님	오빠	처남
누나	형님	언니	처형
남동생	도련님/서방님	남동생	처남
여동생	아가씨	여동생	처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아내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호칭은
있는 그대로를 한자로 옮긴 반면,
남편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호칭은 존칭이네요.

가족 내에서의 차별표현 고치기,
호칭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한쪽만 우대하는 호칭 대신 이름에 ~님이나 ~씨를 붙여
부를 수 있습니다!

단 어	핑프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핑프

'핑프'란 **'핑거 프린세스'**의 줄임말로,
 간단한 정보조차 스스로 검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을 일컫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간단한 검색도 하지 않는 여성을 '공주'라 칭하며
 조롱하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지요.

대상이 남성의 경우, **'핑프(핑거프린스)'**라고도 하며,
 그러한 사람 전체를 통틀어 **'핑프족'**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에 질문을 조롱으로 답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단 어	아몰랑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회피쟁이		

아몰랑 → 회피쟁이

'아몰랑'은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받거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막무가내로, 또는 다짜고짜 넘어가는 행동을 표현한 인터넷 용어입니다.

여성 전체에 대한 비논리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조롱의 맥락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별을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시민입니다.

단 어	여왕벌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커뮤니티 아이들		

여왕벌

‘여왕벌’이란 동호회에서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해
여러 남성 회원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여성 회원을 지칭하는 인터넷 용어

누군가를 비꼬는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 표현에 ‘여성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해
남성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바라보는
여성혐오적인 인식이 숨어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그들을 칭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봅시다.

단 어	며느리발톱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기생발톱, 덧발톱		

며느리발톱 → 기생발톱, 덧발톱

'며느리발톱'이란 새끼발톱에서 갈라진 작은 발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하여 제거하기도 합니다.

'며느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아들에게 더부살이하여 기생하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점에서도,

불편함을 주는 발톱을 지칭할 때
'며느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에서도

'며느리발톱'은 여성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발톱' 대신 [**기생발톱**], [**덧발톱**]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단 어	보이루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보이루

한 인터넷 방송 남성 진행자의 이름과 인사말을 뜻하는 '하이루'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보지'와 '하이루'를 합친 의미로 변질되어 여성을 성기로 지칭하며 멸시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적인 표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단 어	남자같다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남자같다

여성인데 '남자같다'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털털하고 숏컷 머리 모양을 한 여성들이 '남자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털털함과 숏컷은 남성 의 전유물인가요?
차별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단 어	경단녀, 워킹맘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경력 공백, 경력 보유 여성		

경단녀, 워킹맘

→ 경력 공백, 경력 보유 여성

A씨 : 저는 '워킹맘'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이지요.
 둘 다 완벽히 해내는 저를
 사람들은 '슈퍼우먼'이라고 불러요.

B씨 : 저는 '경단녀'예요.
 직장이 있었지만,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였고 경력이 단절되었어요.
 아이가 성장하여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경단녀'라는 꼬리표 때문에 취업이 쉽지가 않아요.

'워킹맘'은 일과 육아 모두 둘 다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경단녀'는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경력 공백 또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

여성의 육아와 경력 공백 문제,
 우리들의 인식부터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단 어	여성성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여성성

가부장제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여성답기**'를 강요하며 여성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여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저마다의 개별적인 존재이니깐요.

이제 각자가 스스로의 '여성성'을 정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성성'은 무엇인가요?

단 어	환향녀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환향녀

‘환향녀’ =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여성’이란 뜻

조선시대 병자호란 당시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탈출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화냥년’ 등으로 불리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순결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후에는 ‘남성의 시선’에서 행실이 부정한 여성들을 욕하는 말로
변질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요즈음 사회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전쟁 피해자
그리고 여성을 욕하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 어	기집애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기집애

'기집애'는 **'계집 아이'**의 줄임말로,
 여자아이 혹은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시나' 또한 '계집 아이'의 경상도 방언이지요.

친근한 사이이거나 장난스럽게 부를 때에도 사용하지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에부터 시작해봅시다.**

단 어	나태펀치, 짬지킵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나태펀치, 짬지킵

청소년들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임신중절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폭력은 장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단 어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아가씨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아가씨~

저기, 아가씨!

누군가 이렇게 불렀을 때, 기분 나빴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가씨’는 원래 미혼의 여성을 높여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가씨’는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원래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직업을 폄하하거나,
연령을 통해 상대와의 상하관계를
확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불쾌함과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요.

말하는 의도와 상황에 따라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죠?

단 어	존예, 존잘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존예, 존잘

존예다! 존잘이야!

누군가의 외모를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존나 예쁘다', '존나 잘생겼다'의 줄임말이지요.

'존나'는 흔히 '매우', '엄청'처럼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이지만,
 본래는 **'남성의 성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폭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감탄하는 말에
 혐오적인 의미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단 어	JMT(존맛탱)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JMT(존맛탱)

존맛탱(JMT)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인가요?

존맛탱은 매우 맛있다는 뜻의 **'존맛'**에
비속어를 순화시켜주는 의미로 **'탱'**을 붙여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이때 접사 **'존-'**은 **'개-'**와 **'핵-'**처럼 **'엄청'**, **'매우'**라는 뜻으로
남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좃'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굳이 이런 표현을 해야 할까요?
'존맛탱'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 어	퐁퐁남, 퐁퐁녀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퐁퐁남, 퐁퐁녀

‘퐁퐁남’, ‘퐁퐁녀’는 경제권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으나, 경제활동과 집안일 모두를 도맡아 하는 여성 혹은 남성을 일컫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타인에 대한 조롱과 무시, 혐오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단어이지요.

혐오와 조롱, 비난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에 둘러싸여서도 존중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단 어	똥꼬충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똥꼬충

남성인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

동성애자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오늘날까지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은 비난과 조롱의 이유도,
혐오의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일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단 어	씨발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씨발

미디어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대부분이 접해봤을 익숙한 비속어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거나
자신의 화난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교를 뜻하는 비속어인
'씹'에서부터 출발한 단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씨발'은 **'씹을 할'**이 변형된 것으로,
'(듣는 대상의 어머니와)성교를 할'
이라는 뜻을 가진 여성혐오적인 표현입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나니 어떠신가요?
익숙함과 불편함, 어떤 것이 먼저 느껴지시나요?

단 어	아빠다리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아빠다리 → 나비다리

‘아빠다리’라는 말, 익숙하시죠?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성차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 남성은 다리를 벌리고 앉아도 되지만, 여성은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비다리’라는 표현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에게 **“나비다리’하고 앉아보자.”** 라고 먼저 말씀해보시죠!

양육자의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세상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단 어	스포츠맨십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스포츠맨십 (Sportmanship)

스포츠맨 즉 운동선수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

운동선수는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걸까요?

남성은 기본이고 기준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많은 영어 표현들이 바뀌었지요.

이제 스포츠맨십도 '**스포츠정신**'으로 바꾸어봅시다!

단 어	하남자, 하여자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하남자, 하여자

'하남자'란 **'상남자'**와 반대되는 말로,
사회에서 '남자답다'고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남성을 일컫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여성도 **'상여자'**와 **'하여자'**로 구분됩니다.

차별표현은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나누고,
'상-'과 **'하-'**를 붙여 **또 우열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유행하는 말이니 사라지면 끝일까요?

수많은 표현들이 이미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 어	집사람, 안사람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집사람, 안사람 → 배우자

바깥사람 남편을, 안사람과 집사람은 아내를 뜻합니다.

남성은 집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했던 시대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만들어진 말이지요.

여전히 그런가요?

여성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도,
남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안'과 '밖'이라는 틀에 가두는 말 대신
'배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남간호사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남간호사

여00, 남00

여의사

여직원

남간호사

여교사

여류작가

여군

남직원

남선생

어떤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그 직업 앞에 성별이 붙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마치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별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그것을 이룰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단 어	외가, 친가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외가, 친가

외가?

친가?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여러분은 조부모님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흔히 아버지의 본가는 **'친할 친(親)'**을 사용하여 **'친가'**,
어머니의 **'바깥 외(外)'**를 사용하여 **'외가'**라고 칭하지요.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차별표현을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친가, 외가 대신 00동 할머니택, 아버지쪽 친척 등

어느 한 쪽을 차별하지 않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도록 노력합시다!

단 어	간스유예기엔교 플필헤네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간스유예기엔교 플필헤네카

남성 의사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어 인터넷에 퍼진 신조어

간-간호사 **스**-스튜어디스 **유**-유학파 **예**-예체능
기-기독교(특히 모태신앙) **엔**-NP정신질환자
교-교사(특히 유치원, 초등교사) **플**-플로리스트(꽃집)
필-필라테스 강사 **헤**-헤어디자이너
네-네일아트 직원 또는 사장 **카**-카페 직원 또는 사장

이 용어는 특정 직업군과 성향을 지닌 여성을 결혼상대로 기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을 그들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단어입니다.

단 어	인터섹스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인터섹스

간성(間性)이라고도 불리는 인터섹스는 '염색체나 생식샘, 성호르몬 등에서 전형적인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성징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그 비율은 전 세계에 1.7% 가량 됩니다.

인터섹스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전형적인 성에 속하기 위해 일생의 많은 시간을 수술에 투자하고, 수술의 실패로 육체적·정신적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남성 외에 다양한 성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단 어	그 성별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그 성별

'그 성별'이란 특정 성별에 대해 비하, 혐오발언을 말할 때 쓰이는 인터넷 용어로, 화자와 반대되는 성별을 뜻합니다.

어떤 이도 자신의 성별을 이유로 비하당하거나 차별당해서는 안됩니다.

나와 다른 성별을 존중하고, 이해해주세요.

3. 장애

단 어	결정장애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우유부단하다		

결정장애 → 우유부단하다

결정 '장애'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 장애로 차별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하다'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단 어	귀머거리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귀머거리

"니 귀머거리가(너 귀머거리니)?"

이 문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귀머거리는 청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향해 사용하지 않으면 될 일인가요?**

우리 함께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봐요!

단 어	난쟁이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난쟁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동화에도 난쟁이 단어가 등장하잖아!!!”

그렇다면 이 ‘**난쟁이**’라는 단어는
단지 ‘**키가 작다**’를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난쟁이는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왜소증 환자에 대한 차별단어입니다.
앞으로도 ‘난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건가요?
그럼 우리 한 번 고민해볼까요?

백설공자와 일곱 []

여러분이 만들어보세요!

단 어	눈먼돈-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눈먼돈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아는 국회	'눈먼돈' 보조금 부정수급
도박에 '눈먼' ○○○	나랏돈은 '눈먼 돈??'
보조금으로 '눈먼돈?' ○○센터 멋대로 사용	

우리는 횡령을 하거나 부정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 "돈에 눈이 멀었구나! 멀었어"라고 말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을 과거부터 자주 사용되었지만 이 '눈먼'이라는 단어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럼 눈이 보인다, 안 보인다, 같은 '보편적 관점'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눈먼'에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눈이 먼'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인지 생각해봅시다.

단 어	문디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문디

'문디'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경상도 사람이라면 "당연하지~!"를 외칠 것 같은데요.

"문디 가스나야" 할 때 주로 가까운 가족, 선생님,
친구한테 들었던 단어인데..

이 '문디'의 뜻을 아셨나요?

'문디'라는 단어는 '문둥이'의 방언입니다.

문둥이 자체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나병 환자를 비하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제 '문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세상을 만들어요!**

단 어	백치미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백치미

최근 한 남자연예인이 여자연예인에게
'백치미' 발언을 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치미'는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사용하셨나요?

백치미의 '**백치**'는 사전적 의미로 뇌에 장애나 질환이 있어
지능이 아주 낮은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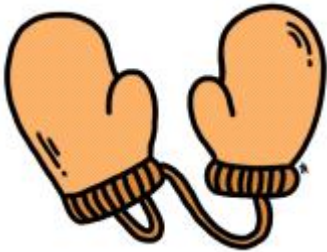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해 이 단어를 접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셨나요?

'장애와 관련된 단어를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어	병어리장갑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손 모아 장갑, 엄지 장갑		

병어리장갑 → 손 모아 장갑, 엄지 장갑

이 장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병어리장갑'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병어리장갑의 병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단어입니다.

대체 단어로 직관적인

[손 모아 장갑]이나 **[엄지 장갑]**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병어리장갑이라고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단 어	병맛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병맛

“와... 드라마 병맛이네...”

허술하고 어이없이 웃긴 상황에
 '병맛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병맛은 **'병신'** 같은+**'맛'**의 줄임말입니다.

'병신'이라는 단어는 장애인을 비하 단어이기 때문에
 '병맛'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어	병신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병신

그렇다면 병신은 무엇일까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우리 어제 뭐 했더라?

병신이나?

그것도 기억 못 하게

몰라 기억 안 남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신'의 본래 쓰임새가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의미이므로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혐오가 무섭지 않나요?

단 어	병신샷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아차샷		

병신샷 → 아차샷

병신은 이외에도 응용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초 대학가에 가면 어느 테이블에서나 '병신샷'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병신샷은 술자리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주는 별주 이름입니다.

대학생으로 이뤄진 비영리단체 '애칭 정하기'는 대안으로 '**아차 샷**'(아차 :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을 때 내는 소리)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아차샷]으로 바꿔볼까요?

단 어	병크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병크

'병'신 + **'크'**리티컬 줄임말로

상대의 치명적인 잘못을 알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단어와 표현을

참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단 어	병먹금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병먹금

‘병먹금’=‘병신에게 먹이 금지’의 준말

상대해주지 말고 무시해 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신조어

이 용어는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정 선수들을 비하하기 위해 일부러 욕을 하는 등 비매너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을 비꼬아

‘병신에게 먹이 금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 유래예요.

현재는 사용범위가 확장되어, SNS, 유튜브, 게임 등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해요.

하지만 이 표현은 매우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건전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어	사시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사시

사팔뜨기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부정적일 것 같아요.

'사시'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나요?

나 자신부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인식을 지워나가요!

단 어	애꾸눈이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애꾸눈이

'애꾸' 하면 애꾸 선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애꾸'는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외박이, 묘목 등이 동의어로 사용되며

애꾸 장이, 외 눈갈, 눈골태기 등의 차별단어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비하 단어는 더 나쁜 단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 단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어	정신병(자), 정신병 걸릴 것 같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정신장애		

정신병(자),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정신병
취소

인기	계정	태그	장소
#	# 정신병동에도아침이와요		게시물 100+개
#	# 정신병		게시물 12K개
#	# 정신병원		게시물 1000+개
#	# 정신병자		게시물 10.5K

시험공부 # 새벽 # 정신병

정신병걸릴듯

♡ 5386 Lijes 4 hours ago

Show all comments [125] ↓

최근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그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두 맥락 모두 '정신병'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병적 정신 상태이며 '정신장애'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소비해도 괜찮을까요?

단 어	정상인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비장애인		

정상인 → 비장애인

장애인(○)

정상인(×)

비장애인(○)

'정상인'은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상인' 혹은 '일반인'은 장애인과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면
 '정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 어	깜깜이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깜깜이

'깜깜하다'는 '어떤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잊은 상태이다.'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자네가 그런 사고를 당한 줄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네요.'

'소식이 깜깜하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깜깜하다'보다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시각장애 비하 표현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깜깜이'는 어떤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지요.

그러나 "깜깜이"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여겨질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시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
비유적으로 무지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레임덕(lame duck)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lame duck) 용어의 유래는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이 용어는 빛을 감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뜻했죠.

이 용어는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 내려가는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며, 채무 불이행 상태의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lame duck)**에 비유한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이 용어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었고, 현재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레임덕은 임기가 끝나가는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용어가 부정적인 상황을 신체 특성으로 빗대어 차별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단 어	반팔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반소매		

반팔 → 반소매

반팔은 팔을 덮지 않는 길이의 옷을 의미합니다.
 팔의 길이는 반팔셔츠와 긴팔셔츠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요.
 그런데 '팔'로 기준을 둔다? 있는 그대로 반팔은 뭘까요?

이 기준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소매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반소매]는 어떨까요?

단 어	외발자전거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한 바퀴 자전거		

외발자전거 → 한 바퀴 자전거

바퀴 하나를 뜻하는 '외'와 신체부위를 빗댄 '발'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신체구조에 당연히 두 다리가 있고 그것이 정상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담겨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바퀴 자전거]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단 어	정신분열증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조현병		

정신분열증 → 조현병

schizophrenia 정신, 마음이 분열되었다는 뜻으로
영어를 한글로 그대로 옮긴 표현이에요.

조현의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환자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정신분열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고 분열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며 사회적 편견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조현병으로 병명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조현병은 정신분열증과 달리 병명을 들었을 때
바로 뜻이 바로 파악되지 않아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이미 병명을 조현병으로 고친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신분열증이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조현병이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좋겠죠?

단 어	장애우, 장애자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 장애인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의미하며,
 '장애우(障礙友(벗 우))'는 친구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지만,
 현재는 오히려 비하하거나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자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가 붙어 있어 사람을 사물화하거나 비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용어는 사람의 정체성을 장애로 한정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해칠 수 있어요.

**이미 장애인으로 단어를 변경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한 번씩 들려오는 단어입니다.**

장애우나 장애자라는 단어 대신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단 어	병어리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병어리

'병어리'는 말하거나 발음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병어리라는 단어 대신 [언어 장애인] 내지는 [발음 장애인]이라는 올바른 표현이 있어요.

간혹 '농인(農人)'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인'은 청각 장애가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거나 발음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모두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부터 바꿔보도록 노력합시다!

단 어	분조장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간헐적 폭발장애		

분조장 → 간헐적 폭발장애

'분노조절장애'의 줄임말로,
별것도 아닌 행동에 쉽게 엄청난 화를 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표현을 남발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장애**]예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비하하며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단 어	치매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신경인지병, 인지저하증		

치매 → 신경인지병, 인지저하증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자어로 뜻을 살펴보면 언어나 동작이 느리고
정신작용이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치매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병으로,
단순히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신경인지병, 인지저하증, 실지증, 뇌퇴하증 등으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한국에서도 대체 용어 개정을 추진 중이나
번번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치매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대만은 2001년에 실지증으로, 일본은 2004년에 인지증으로,
홍콩과 중국은 2010년에 뇌퇴하증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 어	곰배(팔)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곰배(팔)

소아마비나 사고로 팔이 꼬부라져 붙어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행동이 굼뜨거나 야무지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단어,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허언증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허언증

'허언증'은 허풍을 떨거나 관심을 받고자 스스로가 '없는 일'을 만들어 내거나 '있는 일'을 과대 포장하여 남들에게 고의적으로 드러내는 증상을 일컫는 신조어예요.

이 용어의 유래는 "공상허언증"이지만, 인터넷 및 사회 이슈 용어로 번지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형되었어요.

공상허언증은 정신질환의 한 종류로, 본인이 거짓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병이지만,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허언증으로 칭함으로써 정작 공상허언증이 질환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허풍이나 허세를 떨다]라고 바꿔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또라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또라이

수준이 낮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돌'과 '아이'가 결합된 말로,

'또라이'는 '돌아이'의 발음이 변형되어 생긴 단어예요.

'보통 아이와는 달리 수준이 떨어져 이상하고 모자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과거 유명한 예능에서도 자주 쓰였던 단어예요.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단어,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4. 신체, 욕설

단 어	○○고자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에 미숙한 사람		

○○고자 → ~에 미숙한 사람

연애를 못하는 사람, 선택 및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등의 명사를 고자에 붙여 ○○고자라 부릅니다.

고자는 남성 중 생식기 혹은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 장애로 차별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단 어	발암, 암 유발, 암 걸릴 것 같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발암, 암 유발, 암 걸릴 것 같다

어디야? 곧 수업 시작인데 왜 안 옵?

버스 핵 느낌 진짜.. 암 걸릴 격 같아..
너무 답답해.. 발암..

젊은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며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

암 환자와 가족들 입장에서 암은 고통스럽고 치유가 힘든 중병인데
이 단어를 함부로 사용 하면서 희화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발작버튼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발작버튼

버튼을 눌릴 어떤 이유로 격한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행동을 **'발작버튼'**이라고 합니다.

'발작'은 뇌전증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아픔을 무의식적으로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단 어	서구적인 몸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서구적인 몸매

○○○, 서구적인 몸매에 멈출 수 없는 클릭

○○일보 2019.12.01.

8등신 서구적인 몸매 여배우

○○일보 2019.11.20.

서구적인 몸매로 핫한 화제의 모델인 그녀

○○일보 2019.11.25.

환상적인 서구적인 몸매에 아찔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일보 2019.10.25.

서구적인 몸매와 이목구비 '반할만하네'

○○일보 2019.09.23.

'서구적인 몸매'를 들어보셨나요? '동양적인 몸매'는요?

특정 지역인 서양을 뜻하는 '서구'를 사용하는데요.
비서양보다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기사 제목을 보면 '칭찬'이라는 이름으로 '성희롱'하지 않나요?
'칭찬'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칭찬'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지 말아요!

단 어	성괴, 강남미인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성괴, 강남미인

'성괴', '강남미인' 들어보셨나요?

'성괴'는 '성형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괴물로 부르기 전에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외모지상주의 사회 아닌가요?

성형하라고 부추기는 온갖 광고들, 성형외과들, 사람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 품평을 당하지만

성형을 하면 '괴물', '강남미인'이라고 조롱당하며 편견에 맞서야 합니다.

과도한 성형은 몸에 해로울 수 있지만 이전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단 어	염병할, 염병하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염병할, 염병하네

딸내미한테 '전염병을 앓을 OO아~' 라고 할 수 있으세요?
 과거에는 장티푸스가 가장 두려운 병이었고, 목숨까지 빼앗아 갔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무서운 장티푸스에 걸리라고
 저주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염병~'하지 말아요!

*'뇌전등'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지랄 염병~
염병할 가시나야!
싸돌아 댕기지 말고
공부나 해!

단 어	존나, 즐라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엄청, 매우		

존나, 즐라 → 엄청, 매우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

남성의 성기를 비속하게 이르는 '좃'에서 파생된 말로

남성의 성기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충격을 말하는 저속한 욕설

사용해도 괜찮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 어	파오후 콤척콤척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파오후 콤척콤척

'파오후'는 뚱뚱한 체형을 가진 사람의 호흡소리를 뜻하는 의성어
'콤척 콤척'은 뚱뚱한 체형을 가진 사람의 음식 섭취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

'파오후', '콤척 콤척'을 사용하는 것은
뚱뚱한 체형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는 체형에 대한 **편견**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게으르다. 자기 관리를 못 한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비만혐오는 자기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편견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야 하나요?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면 됩니다.**

단 어	합죽이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합죽이

학교에서 거의 매 시간마다 구호처럼 외쳤던
'합죽이가 됩시다. 합! 죽! 이! 합!'

원지도 모르고 우리는 '합죽이'가 되었는데요.

'합죽이'란 이가 빠져 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을 앞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특히,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다니!

무심코 사용했던 단어의 배신, 말모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단 어	화이트닝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브라이트닝		

화이트닝 → 브라이트닝

화이트닝=피부나 치아를 아름답고 희게 하는 것

'미'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있지만
유독 '하얀 게=예쁜 것이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용시술 단어가 필요하니 '밝게 하기'라는 뜻을 가진 '브라이트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이 역시도 외모지상주의가 녹아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얼굴 미백만 생각하시나요?
치아 화이트닝, 겨드랑이 화이트닝, 유두 화이트닝, 소음순 화이트닝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떤 세상인가요?

단 어	반편이(반피)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p data-bbox="209 398 660 488">반편이(반피)</p> <p data-bbox="204 651 1347 696">지능이 낮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경상도에서 '반피'로 사용</p>			

단 어	호로자식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호로자식

"호로자식"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1.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
: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식을 비하하는 표현.
2. 오랑캐의 자식
: 역사적으로 외국인이나 다른 민족을 경멸적으로 부를 때 사용된 표현.
3. 청나라에 아첨하여 벼슬을 얻은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 조선 시대에 청나라에 아첨하여 벼슬을 얻은 사람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표현.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단어,
이제는 사용하지 맙시다!

단 어	새끼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어린 녀석		

새끼 → 어린 녀석

혹시 **'새끼'**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동물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통 누군가를 낮잡아 이르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사람은 어린 짐승이 아니죠.

그렇다면 낮잡아 이르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동물에 빗대어도 되는 걸까요?

동물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물에 빗대어 부정적이거나 낮잡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제부터 **[어린 녀석]**이라는 단어로 대체해
사용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단 어	돼지런하다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먹부심, 먹는 것에 진심이다		

돼지런하다 → 먹부심 먹는 것에 진심이다

‘돼지 + 런(RUN)’?? 의 뜻일까요?

실제 ‘돼지런하다는’ ‘돼지 + 부지런하다’의 합성어로
 먹을 것에 매우 부지런하다 또는 먹을 때만 부지런하다라는 의미예요.

주로 많이 먹거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돼지’는 ‘몹시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므로 ‘돼지런하다’는 먹는데 욕심이 많은
 부정적인 의미를 풍길 수 있으므로

[먹부심], [먹는 것에 진심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때요?

단 어	얼빡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얼빡

'얼짱'의 반대개념으로 '얼'굴이 '빡'점이다라는 의미로
얼굴이 정말 못생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피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두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긍정적이고 배려심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얼빡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단 어	장미단추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장미단추

'장거리에서선 미녀(미남), 근데 단거리에서 추녀(추남)'의
 줄임말은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특정 거리에서의 외모 차이를 비하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사회,
우리의 언어습관에서부터 시작해 봐요.

단 어	오타쿠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오타쿠

특정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매우 심취하고 몰입한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 '오타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한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존중받아야 하고,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씹덕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씹덕

오타쿠를 다르게 칭하는 말이지만,
오타쿠가 현재 마니아와 비슷하게 쓰이는 점에서
'씹덕'은 애니마니아층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네다씹', '그먼씹'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씹'이라는 접사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입니다.

여성혐오 단어, 그 뜻을 알고도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단 어	마기꾼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마기꾼

**‘마기꾼’=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보다 더 예쁘거나
잘생겨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 용어는 남의 외모를 평가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하하는 태도,
이제는 그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단 어	려차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려차

영어 FUCK을 한글로 친 것. 욕설.

단 어	갈미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갈미

갈수록 미운 사람의 줄인 말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은어는 아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미운사람, 준거 없이 괜히 미운 사람, '갈미'라고 칭하기도 해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사용되므로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단 어	싸불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싸불

'싸불'='싸'이버 '불'링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동,
엄연한 범죄입니다!

단 어	비실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비실이

몸이 약하거나 마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친구 사이에 자주 오가는 말이라 익숙하지만 타인을 겉모습으로 깎아내리는 비적절한 단어입니다.

힘없이 흐느적흐느적 자꾸 비틀거리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태를 연상시키며,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어	T발 C야?(티발 씨야?)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T발 C야?(티발 씨야?)

'너 T발 C야?'라는 말은 MBTI를 기준으로 T(Thinking)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사용되며, 욕과 엠비티아이 성향 티를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너 MBTI가 T야?"라고 묻는 걸 비속어를 섞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정확히 "너 시X T야?"로 해석 되요.

그리고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T(Thinking)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감정적이 아니라고 또는 감정에 공감을 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단 어	좃만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좃만이

매우 작거나 하찮은 것을 의미하고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성기를 매우 작게 비유하는 데 사용되어,
상대방을 극도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어,
일상 대화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언어로 느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아닥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아닥

입을 속되게 부르는 '**아가리**'와 '**닥치다**'를
줄여서 만들어진 비속어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
공손하고 좀 더 상냥한 예의 바른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실 건가요?

단 어	쫘생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쫘생이

옹졸한 사람이나 자질구레한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도량이 좁고 옹졸할 때 우리는 '쫘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쫘스러운 사람을 접미사 '-생이'를 붙여서 '쫘생이'라고 하고 전라도 방언으로는 '쫘생이'라고 해요.

쫘생이가 단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남한테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남한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는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단 어	멸치(안여멸, 멸공)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멸치(안여멸, 멸공)

좀 심하게 마른 사람을 나타내는 혐오표현입니다.
단순히 날씬하다와 마르다보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요.

'안경' + '여드름' + '멸치'의 합성어로 몸이 뼈빠 마르고
여드름 투성이에 안경을 쓴 오덕(오타쿠)을 말하기도 하세요.

멸치 공익의 줄임말로 체중 미달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세요!

단 어	○○충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충

어떤 행위가 지나친 사람에게 **'벌레 충(蟲)'**이라는
한자를 붙여 부르는 혐오표현이지요.

연금충, 급식충, 설명충, 맘충... 지칭하는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그저 재미로, 한순간의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붙여 모두를 혐오하다보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5. 인종, 국가

단 어	국뺩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애국심		

국뺩 → 애국심

'국'가+히로 '뺩'

중년층에는 자국 우월주의
이미지가 강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경향

젊은층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경향

나이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지만 마약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일본어 '히로폰'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뺩해설, 국뺩영화, 국뺩기사, 국뺩이 차오른다!
무분별한 사용은 이제 **그만!!**

단 어	스시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스시녀

여성이 음식인가요?

'스시녀'=한국 여성보다 일본 여성이 순종적일 것이라는 일부 한국 남성의 편견이 담긴 단어

여성을 음식에 비유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남성 우월적 사고방식이며 성적 대상화 단어입니다.

바뀌서 바라보면 한국 여성에 대한 혐오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에게도 **일본 여성**에게도 명백한 **여성 혐오 단어**입니다.

단 어	다문화가정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이주민가정		

다문화가정 → 이주민가정

'다문화가정'은 대한민국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익숙한 말이지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 속 차별과 혐오에도 적응한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정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이민자 가정 등의 가족형태로 그 의미가 축소되죠.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들을 보호의 이유나 멸시를 통해 우리와 그들로 구분합니다.

다문화가정, 다양화를 필요로 하면서 그것을 차별의 이유로 여기는 반쪽짜리 다문화는 아닌가요?

[이주민가정] 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선주민과 이주민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곳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 꾸린 가정을 일컫는 폭넓은 개념이죠.

선주민과 이주민을 가르는 태도, 단어에서부터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외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외퀴

외국인 '팬' + 바'퀴'벌레의 합성어입니다.

지나친 팬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외국인 팬!'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나요?
거꾸로 가는 세계화입니다.

단 어	조선족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중국동포,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 중국동포,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같은 핏줄을 이어받는 민족)

조선족은 중국 정부가 한민족 혈통을 가진
소수민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로 혹은 이주한 동포들에게
재미교포, 재외동포, 재일교포, 재일동포 등으로 부르지 않나요?

출신을 나타내는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중국 동포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성폭행과 살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조선족 잠재적 범죄자
이미지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호칭을 **[중국 동포], [한국계 중국인]**으로
고쳐 부르는 문화를 확산하여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단 어	쪽발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쪽발이

'쪽발+'이'

한국인이란 다들 아는 단어입니다.

일본인이 신는 게다(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들을 나누는 나막식)를 보고 두 쪽으로 나누어진 짐승의 발을 가리키는 '쪽 발'에 비유하여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를 붙인 단어입니다.

이 밖에도 '오랑캐', '왜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없으니 과거의 잘못을 알려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되

혐오표현은 지양하는 게 어떨까요?

단 어	코쟁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코쟁이

코가 크다는 뜻에서 서양인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이외에도 양놈, 양키 등이 있습니다.

무심코 웃자고 사용한 단어들
누군가에겐 웃을 수 없고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어	튀기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튀기

‘튀기’=종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낮잡아 부르기 시작한 말로

특히 흑인 남성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람은 단일 종으로 인종이나 민족이 서로 다른 양친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을 ‘혼혈’로 표현해야함에도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와 같이
종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뜻하는 ‘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동물에 비유한 것이 옳은 것일까요?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단 어	흑형, 흑누나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흑형, 흑누나

'흑형'=흑인 남성

'흑누나'=흑인 여성

인종차별적인 의도보다는 흑은 남성 혹은 여성들의 멋진 모습 혹은 활약들을 보고 일종의 경외감과 존경심이 담긴 단어지만

비하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집단 및 피부색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와 고착화하는 단어와 표현은 일종의 편견이나 차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2019)'에 의하면 긍정적인 의미, 칭찬으로 생각한 표현들도 '혐오표현(Hate Speech)'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총 싸 봤어요?

역시 몸이 좋네요

와 역시 흑형

단 어	흰둥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흰둥이

피부가 흰 백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흰' + '둥이'**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가 합쳐진 합성어다.

비슷한 예로 검둥이, 귀염둥이, 막내둥이, 바람둥이 등이 있는데요.

특히 흰둥이나 검둥이는 인종이나 피부색을 비하하거나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며,
 다양성과 인종 간의 평등과 존중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구촌에 사는 지구촌인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양키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양키

미국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북 전쟁 때에는 남군이 북군을 조롱하여 이르던 말에서 유래한 말로 반미감정을 담은 욕으로 사용합니다.

언어의 선택이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상호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모든 문화와 개인에 대해
존중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인"과 같은 중립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더 긍정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 어	외노자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외노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외노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주로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기회를 찾아 본국을 떠난 저개발국가의 시민들입니다.

이 단어에는 때때로 경멸적인 색채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외에서 워킹 홀리데이나 단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 한국인들 역시 스스로를 '외노자'라고 부르며, 이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개인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존중받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단 어	단일 민족이 최고야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단일 민족이 최고야

한 나라의 주민이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민족'이 최고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단일민족,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일 민족이 최고야'라는 표현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단일민족 혹은 단일문화의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원시적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원시적

‘처음 그대로의 상태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특정 문화나 집단을 기술할 때 사용되면, 그들의 문화나 기술 수준이 낮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단어,

상황과 의미를 생각하며

바른 언어 사용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단 어	초원의 사람들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초원의 사람들

특정 지역의 원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여 기술하는 데 사용될 때,
그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 어	반쯤 외국인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이중국적인(자)		

반쯤 외국인

혼혈이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비속어로,
 그 사람의 국적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대체단어로 [**이중 국적인(자)**]를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단 어	선주민/이주민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선주민/이주민

어떤 지역에 먼저 살던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원주민이 같은 유사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선주민의 '선'은 '先(먼저 선)'을 뜻하고,
 이주민의 '이'는 '移(옮길이)'로
 외국으로 가는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근래에는 선주민/이주민을 사용하는 것 같으나,
 먼저 있었다와 옮겨갔다/옮겨왔다는 것으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분류하는 용어로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단 어	똥남아,깜둥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똥남아, 깜둥이

[The W]"똥남아" 외치는 한국인들...내로남불 인종차별

"식당 손님들, '똥남아', '후진국 사람'이라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주민 3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서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은 68.4%나 된다. 차별 사유(중복응답 가능)로는 △한국어 능력 62.3% △국적 59.7% △민족 47.7% △인종 44.7% △피부색 24.3%였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베트남인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귀화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똥남아"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식당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으면 손님들이 '똥남아', '후진국 사람'이라고 부른다"며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했다.

<2021.04.24. 머니투데이>

우리도 한때는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단 어	살색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살구색		

살색 → 살구색

"알아봤어? 크레파스 상자 속에 그 연한 주황색 비슷한 색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색**'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사실 '**살색**'이라는 말이 맞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의 색으로 정의할 수 없거든. 그 색을 가리켜 '**살색**'이라고 부르는 건 좀 부적절해. 그래서 이 색을 '**살구색**'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살색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는 [**살구색**]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단 어	왜놈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왜놈

‘왜놈’=일본 사람, 특히 일본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특정 국가 및 국가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과거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아직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 사용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인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단 어	칭칭총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칭칭총

황인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흑인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전혀 놀림거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걸 인정해주고,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단어는 사용을 멈춰 줍시다.

'칭칭총'이라는 말은 아시아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 말을 쓰는 건 좋지 않아. 왜냐하면, 첫째로 이 말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고 퍼트리는데 거야. 둘째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쓰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잘 지내려면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

단 어	하이브리드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혼혈		

하이브리드 → 혼혈

‘하이브리드’=동물이나 식물의 잡종, 혼종, 이종을 뜻하는 영어 단어

최근 자동차와 같은 기술에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기능이
 합쳐진 것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혼혈인 사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일 종으로 서로 섞인다 해도 하이브리드를 뜻하는
 잡종, 혼종, 이종이라 할 수 없으며 혼혈이라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단 어	반문명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p data-bbox="209 398 443 481">반문명</p> <p data-bbox="204 654 1177 817">이는 특정 집단이나 문화가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p>			

단 어	혼혈아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혼혈아

순수혈통, 단일민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섞인(혼) 피(혈)'라는 뜻을 지닌 혼혈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혼혈'아'라는 표현은 대상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이에 불과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인이 될 수 없는 존재,
완전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코시안', '다문화 가정 자녀', '온누리안'...

그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 짓는 표현에 앞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가치가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 어	짱개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중국음식점		

짱개 → 중국음식점

'**짱개**'는 중국인에 대한 아주 오래된 혐오 표현이면서 중국음식점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나라, 인종을 비하하는 표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함께 살아갈 동료들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 '다들 그렇게 부르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나부터**' 달라져봅시다.

****민준:**** 어제 그 사람이 **짱개**라는 말을 썼더라고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재미로 한 말일 뿐인데.

****지현:**** 음, 그 말은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이는 말이야. 정말 상처가 될 수 있어. 재미로 한다고 해도,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해.

****민준:**** 상처라니? 그렇게 예민할 필요 있어? 그냥 말일 뿐인데.

****지현:**** 말이라도 중요해. **짱개** 같은 말은 중국인을 비하하면서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이건 결국 그 사람들을 '단순한 그룹'으로만 보게 만들어. 그리고 이런 말은 사회적으로도 분열을 촉진시켜. 더 중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많은 나라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은 처벌받을 수 있어.

****민준:****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말인데,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중요하니까.

****지현:**** 맞아, 우리 모두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걸 배워야 해.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어.

6. 지역

단 어	빨갱이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빨갱이

한국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국가의 사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 진보나 민주당 계열 인사를 공산주의나 북한과 연관지어 비난하는 데 사용하거나 중국공산당을 옹호하는 조선족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주로 사용되던 언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좌파, 혹은 '극좌'에 빨갱이를 합쳐서 '좌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조금 다르거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는 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단 어	견상도, 개쌍도, 알보칠, 까보전, 전라디언, 설라디언, 네다홍, 홍어, 라도, 감자도, 멍청도	구 분	말모이1
-----	--	-----	------

대체단어	
------	--

**견상도, 개쌍도, 알보칠, 까보전,
전라디언, 설라디언, 네다홍,
홍어, 라도, 감자도, 멍청도...**

견상도, 개쌍도	경상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
알보칠	'알고보니 7시'의 줄임말로, 지도상 전라도의 위치가 7시라는 것을 빗대어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
까보전	'까고 보니 전라도 사람'의 줄임말
전라디언	전라도 지역의 사람을 비하하는 말
설라디언	전라도 출신이나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
네다홍	'네, 다음 홍어'의 줄임말로, 홍어는 전전라도 지역 사람을 칭하는 속어
홍어	전라도 향토음식에 빗대어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
라도	'전라도'의 줄임말로 전라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감자도	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
멍청도	충청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

이 단어들은 모두 **'지역혐오표현'**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혐오를 멈추세요.

단 어	지균충, 기균충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지균충, 기균충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전형'** 학생들을 비하하는 말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벌레 충(蟲)'**자를 써서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일보 2017.11.02

지역균형·재외국민 입학생들 열등생 취급하며 배타적 문화

'지균충, 재외국민충, 논술충, 학종충'

요즘 인터넷에서 대학생들끼리 입학 전형에 따라 구분해 부르는 혐오 표현이다. 지균충은지방학생을 우대하는 지역균형 선발, 논술충은 논술전형, 학종충은 학생부 종합 전형, 재외국민충은 외국서 체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뜻한다. 굳이 전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전형을 치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밀어내는 배타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월의식까지 작용하며 보이지 않는 서열화로 진행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차별의식 때문에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2015년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한 사립대에 입학한 김 모(21)씨는 아직도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지역균형 선발이나 재외국민 전형을 치른 학생들을 열등생 취급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준 차이 나서 수업 따라가기 힘들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 어	갓울대, 지잡대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갓울대, 지잡대

'갓울대'=서울대학교를 GOD(신)에 비유한 표현

'지잡대'=지방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이라 줄인 표현

갓울대와 지잡대는 학벌을 중시하고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비하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하는 청년들은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지잡대'라는 꼬리표로 청년들의 꿈을 막지 말아주세요.

민수: 야, 너 그 말 들어봤어? 지잡대라고 하던데.

지훈: 아, 그 말 진짜 싫어. 지방 대학을 비하하는 말이잖아. 사실 어떤 대학이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로 사람들을 평가해?

민수: 맞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지훈: 그니까, '지잡대'라는 말 대신 그냥 그 대학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게 어떨까? 모든 대학과 학생들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일 거야.

민수: 진짜 그래야겠다. 모든 청년이 자기 꿈을 찾아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꼬리표가 누군가의 꿈을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7. 우리말 속 일본어

단 어	찢따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찢따

'절름발이'를 뜻하는 일본어 '침바(ちんぱ)'에 서 온 일제의 잔재

한국 전쟁 이후 다리가 잘린 사람을 보며

'멍청하게 지로나 밟았다'며 비하 하는 의도로 사용되면서

'병신(장애인 비하)'을 뜻하는 비속어로 확장된 단어입니다.

단 어	견습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수습		

견습 → 수습

|뜻|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 또는 그런 일.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見習, みならい)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수습]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고참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선임(자)		

고참 → 선임(자)

|뜻| 오래전부터 한 직위나 직장 따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古參, こそん)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선임(자)**]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기스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흠(집)		

기스 → 흠(집)

|뜻| 어떤 물건의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傷, きず)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흠(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납기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내는 날		

납기 → 내는 날

[뜻]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納期, のうき)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내는 날**]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내역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명세		

내역 → 명세

|뜻|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內譯, うちわけ)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명세]라고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시말서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경위서		

시말서 → 경위서

|뜻|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始末書,しまつよ)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경위서**]라고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식비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밥값		

잔반 → 남은 밥, 음식찌꺼기

|뜻| 먹는 데 드는 돈.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食費, しょくひ)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밥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잔반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남은 밥, 음식찌꺼기		

잔반 → 남은 밥, 음식찌꺼기

[뜻] 먹고 남은 음식.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殘飯, ざんぱん)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남은밥], [음식찌꺼기]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양식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서식		

양식 → 서식

|뜻|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様式, ようしき)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서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땡땡이 무늬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물방울 무늬		

땡땡이 무늬 → 물방울 무늬

|뜻| 작고 동글동글한 물방울 모양을 본떠 만든 무늬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てんてん·点点(덴텐))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물방울 무늬**]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나시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민소매		

나시 → 민소매

|뜻| 소매가 없는 상의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袖無し(소데나시))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민소매]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오뎅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어묵		

오뎅 → 어묵

|뜻| 어묵, 무, 곤약 등을 넣고 끓인 탕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おでん(오뎅))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뎅'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비표준어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본의 '오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묵'이 아니라 어묵, 무, 곤약 등을 넣고 끓인 탕 요리 자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물고기 어(魚)'와 순 우리말 '묵'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생선살을 으깨어 만든 우리말의 표현인

[어묵]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18번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애창곡		

18번 → 애창곡

|뜻| 가장 뛰어난 장기(노래) 혹은 레퍼토리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十八番(쥬하치반))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번'이라는 표현은 원래 가부키 배우들이 자신의 주특기 공연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를 이후 일본에서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나 자신 있는 레퍼토리를 의미하는 뜻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애창곡]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 어	오마카세, 커마카세, 견마카세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오마카세, 커마카세, 견마카세

'오마카세' 는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 선택을 맡기는 코스 요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마카세에서 영역을 넓혀 커마카세(커피+오마카세), 견마카세(반려동물+오마카세) 등으로 쓰이며 오마카세 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 바탕을 둔 오마카세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여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어	게양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답시다, 올립시다		

게양 → 답시다, 올립시다

‘게양’은 깃발을 들어 올리거나 펼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국기나 다른 종류의 깃발을 정해진 위치나
기둥에 매달아 표시하는 공식적인 행사나 절차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일본어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일상적인 한국어 표현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국기를 게양한다는 표현이 흔히 쓰입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하여 더 적절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를 답시다**], 혹은 [**태극기를 올립시다**]와
같은 표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단 어	간지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멋지다, 훌륭하다		

간지 → 멋지다, 훌륭하다

|뜻| 멋지다

|이유(근거)| 일본식 한자어 (感じ(간지))

우리말의 표현이 있는데 굳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언어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인 [멋지다], [훌륭하다]고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8. 직업

단 어	○○조무사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조무사

간호조무사에서 '**조무사**'를 따와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특히, 경찰, 소방관, 축구선수 등 기존에 남성들이 해 온 직업군에 속한 여성을 향해 사용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는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을 아시나요?
결코 그 과정에 대해 비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어	기레기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나쁜기자		

기레기 → 나쁜기자

'기'자 + 쓰'레기' 합성어

대한민국에서 허위 사실과 과장된 기사로 저널리즘을 떨어뜨리고
 기자로서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과 그 사회 현상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보도하고 불합리한 것을 고발하는 기자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기레기'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비하단어입니다.

우리도 언론이 사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비판적 자세를 취해볼까요?

혐오적인 표현보다는 [나쁜기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요?

왜곡	자극적	비윤리
낚시	악마의 편집	가짜
선정	황포	오보

단 어	일반인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비연예인		

일반인 → 비연예인

○○ 출신 가수 xxx, 오늘(23일) 4세 연하 일반인 남자와 결혼

말모이뉴스 / 1시간전 / 공유하기

연예인은 특별한 지위나 신분이 아닌,
그저 많고 많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단 어	공순이, 공돌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공학도, 엔지니어		

공순이, 공돌이 → 공학도, 엔지니어

'공순이'=공장 여자 근로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공돌이'=공장 남자 근로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1970~80년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참여하여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역인 그들을 우리 사회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공순이', '공돌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의미를 공과대학에서 공학을 배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고, 직업만으로 사람의 귀하고 천함을 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끈,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갈 주역들에게 **[공학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단 어	딸배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배달기사		

딸배 → 배달기사

‘배달’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표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기사를 비하하는 비속어입니다.

이들의 잦은 신호위반과 난폭 운전 등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으며
생겨난 단어지만, 현재는 용달기사, 택배기사 등 차량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쓰이는 경우가 있고, 걸어서 배달하는
사람에게는 ‘걸는 딸배’라고도 지칭합니다.

생업을 위해 혹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배달기사 일을 하는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서 공부를 못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낮잡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신의 기준에서 모두를 판단하는 편견은
버려야하지 않을까요? [**배달기사**]라는 말을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단 어	폰팔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폰팔이

'폰팔이'는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휴대폰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칭하기도 합니다.

특정 직업군을 비하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정인물에게 화가 나서 한 표현으로
 수많은 이들을 고정관념 속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지영: 저번에 폰 샀을 때 직원이 정말 친절했어. 근데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폰팔이'라고 부르더라고.

현우: 그 말은 좀 문제가 있어. '폰팔이'라는 말이 휴대폰 판매자들을 전부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처럼 들릴 수 있거든. 사실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야.

지영: 맞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업 전체가 나쁜 이미지를 가질 필요는 없잖아.

현우: 정확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해. 모든 휴대폰 판매자를 하나의 부정적인 용어로 묶는 건 공정하지 않아.

9. 빈부

단 어	꽃제비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꽃제비

혹시 **'꽃제비'**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북한에서 집 없이 먹거리를 찾아 떠도는 아이들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똥치기 꽃제비, 쓰레기 꽃제비, 매춘 꽃제비 등 유형화되어 불리고, 북한 어린이 혹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사라져야 할 단어가 아닐까요?

단 어	기생수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기생수

'기'초 '생'활 '수'급자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청소년 사이에서 생겨나 번지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임거(임대아파트 거지)', '빌거(빌라 거지)',
 '200충(부모님 월급 200만원)' 등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혐오 표현입니다.

사회가 힘들어질수록 약자에 대한 혐오가 짙어집니다.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교육이 시급합니다.

단 어	흙수저, 금수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흙수저, 금수저

금수저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을 물려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경제적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와 흙수저의 민낯은 '부'가 세습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상처는 왜 받아야 하나요?

단 어	이생집망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이생집망

‘이번 생에는 집 사기 망했다’의 줄임말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좌절감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단 어	엘사, 휴거, 빌거, 주거, 반거, 주거, 전거지, 호텔거지, 개근거지	구 분	미분류
-----	---	-----	-----

대체단어	
------	--

엘사, 휴거, 빌거, 주거, 반거, 월거, 전거, 호텔거지, 개근거지

엘사=LH사는 사람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빌거=빌라거지

주거=주택거지

반거=반지하거지

월거=월세거지

전거=전세거지

호텔거지=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개근거지=경제적 상황으로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학생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과 경제수준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슬픈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평가기준을 경제수준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	결손가족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벼락거지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일컫는 말.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조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벼락부자의 졸부의 의미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단어는 개인의 자존감을 해치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단 어	결손가족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결손가족

결손가족은 부모님의 어느 한쪽 혹은 모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결손이 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결손'이라는 단어는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규범 내의 가족만 완전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은 불완전하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요?

단 어	리터루족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리터루족

'돌아가다'의 'return'과 캥거루가 합쳐진 신조어

결혼 후 독립했다가 치솟는 물가, 주거비, 육아 등의 문제로 다시 부모님 세대와 결합한 자녀를 일컫는 말.

단 어	보유세푸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보유세푸어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집값 등이 너무 올라
세금 가중으로 보유세 부담 감당이 어려운 은퇴자를 말한다.

단 어	지낱괴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자낱괴

‘자낱괴’ = ‘자’ 본주의가 **‘낱’**은 **‘괴’**물

인터넷 방송인이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기 위해
해괴한 행동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말로

주로 가난한 청년층들이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돈 앞에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입니다.

10. 기타

단 어	노처녀, 노총각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노처녀, 노총각

결혼할 시기를 넘겼지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을 의미

'결혼'이 꼭 기준이 되어야할까요?

결혼을 해야만 정상적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꼭 순결해야한다는 구시대적인 표현!

개인의 선택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 어	낙태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임신중단, 임신중절		

낙태 → 임신중단, 임신중절

落(떨어질 낙) 胎(아이 뱀 태)

뜻을 알고 계셨습니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성에게만 처벌했습니다.

낙태를 하더라도 죄책감은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낳아야만 했던 여성과 자녀는 사회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분명 남성의 책임도 있을텐데 말이죠.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구조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임신 중단', '임신 중절'로 사용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단 어	몰래카메라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비동의불법촬영(물)		

몰래카메라 → 비동의불법촬영(물)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 유포, 전시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몰래'라는 단어에 '남이 모르게 살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이 결코 가볍고 장난스럽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몰카 안경, 몰카 시계, 몰카 볼펜 등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는 몰카(몰래카메라) 찾는 방법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동의 불법촬영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판매 규제가 필요하며,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 관점인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받는
[비동의불법촬영(물)]입니다.**

단 어	주류, 비주류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다수, 소수		

주류, 비주류 → 다수, 소수

모든 의견은 동등하며 존중해야합니다.

대신 [**다수**], [**소수**]는 어떨까요?

단 어	혼전순결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혼후관계주의		

혼전순결 → 혼후관계주의

순결=지켜야하는 것???

혼전순결=혼인 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러한 가치관

혼후관계주의=혼인 후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가치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세요!

단 어	씹선비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씹선비

자기의 관념을 고집하고, 타인에게 이를 강요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

온라인상에서 현대인 기준에서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고

융통성이 없고 타인을 지적한다는 인식이 강한

조선시대 지식 계층이었던 '선비' 앞에 부정적 의미의 접두어 '씹'을 붙여서 만들어진 신조어

오래된 것, 과거의 것을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고지식하다라고

생각이야말로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단 어	편부모(편부, 편모)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한부모		

편부모(편부, 편모) → 한부모

표준국어대사전

편부모 -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

한부모 -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있음

편견은 덜고, 사실은 담아요!

사실만을 뜻하는 [**한부모**]를 사용하는게 어떨까요?

단 어	학부모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보호자		

학부모 → 보호자

학부형(學夫兄)이 학부모(學夫母)가 되었듯이
 '학부모'도 이제는 '보호자'라고 부른대요!

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보호자]라고 불러야겠죠?

단 어	캣맘	구 분	미분류
대체단어	캣엔젤		

캣맘 → 캣엔젤

캣맘(Cat Mom)은 주인 없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캣맘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는 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들을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지요.

누군가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엄마(Mo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대상에게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을 붙이는 것 역시 차별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굶주린 고양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사람들은 이들을 [**캣엔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단 어	찐찌버거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찐찌버거

'찐'다, '찌'질이, '버'러지, '거'지의 줄임말로 누군가를 비하하는 단어

단 어	빵셔틀	구 분	말모이1
대체단어			

빵셔틀

'빵'+ '셔틀'의 합성어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속 병력을 운송하는 수송선을 빗대어 힘이 센 학생이 힘이 약한 학생에게 쉬는 시간 매점에 대신 가서 빵 등을 사 오라고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야 빵 좀 사와!”

언어폭력 신체폭력 모두 누군가를 해치는 일입니다.

단 어	장애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장애

막을(장) / 거리끼다, 방해하다(애)

통신 장애, 장애물 달리기...
 고쳐서 '정상'의 상태로 만들거나
 '가로막힌 것을 넘어야 하는' 장애.

사람에게 쓰이고 있네요.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인식,
 신체, 정신적으로 결함이라는 인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익숙한 것에 대해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꺼내봅니다.

단 어	등골 브레이커, 조공 브레이커	구 분	말모이2
대체단어			

등골 브레이커, 조공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여 부러뜨리는 자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사람이나 제품 따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최근 청소년의 명품 소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주눅들까 고민하기보다는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떨까요?

조공 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상품을 사는 청소년을

일컫던 '등골 브레이커'에서 파생된 말로, 아이돌에게 조공하면서 이른바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

스타에게 팬으로서 선물을 주는 것을 뜻하는 '조공'과 '브레이커 (breaker)의 합성어로 아이돌에게 고가의 선물을 조공하면서 이른바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팬으로서 스타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부모님께 큰 부담을 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명한 팬이 된다면 그 스타들도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